

# 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## 신재생에너지

### ◆ 아제르바이잔-조지아-헝가리-루마니아, 흑해 에너지 프로젝트 합작투자 설립 (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)

-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루마니아, 헝가리 간 체결한 그린에너지 개발 및 수송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이행을 위한 제8차 장관급/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됨(9.3).
- 샤바조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장관은 동 회의가 4자 협정의 이행과 아제르바이잔이 유럽 녹색 에너지 공급국으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진전과 부쿠레슈티 내 합작투자(JV) 설립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함.
  - 아울러,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불가리아 에너지 통합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부언

## 광물자원

### ◆ 북미지역 對중국 핵심광물 관세인상 조치 동향(주캐나다대사관)

※ 출처: 한국광해광업공단 캐나다사무소, 북미지역 광업 주간동향

-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중국産 전기차·철강·알루미늄 관세인상 발표 시 예고한 핵심광물·태양광·배터리·반도체 관세인상 관련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착수한다고 발표함(9.10).
  -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반대중·원주민그룹·州政府·노동조합·경제계·학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예정
- 이에,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으며, 특정 국가를 따라 자유무역주의와 WTO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함.
  - 전기차·철강·알루미늄 관세인상에 WTO 제소 방침 발표, 캐나다産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추진 등 무역 갈등 발발
- 한편,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무역법 301조 따른 정례검토를 완료했다고 하면서, 지난 5월 발표한 對중국 관세인상안을 확정, 일부 품목에 대해 9월 27일부로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힘(9.13).
  - (관세인상 품목) △전기차(100%) △태양광제품(50%) △철강·알루미늄·전기차용 배터리·배터리 부품·기타 핵심광물(25%). 끝.